

중학생의 진로체험활동 참여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

-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는 3.98점(5점 만점)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3.86점)보다 높음.
- 남녀, 아버지 학력과 관계없이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한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는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높음.
- 진로체험 효과는 진로성숙도가 낮은 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남.
- 진로성숙도가 낮은 학생은 직업인 강연회,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은 진로캠프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진로성숙도에 따라 효과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다름.

| 주 |

이 글은 '이기정·김영세(2016). 『진로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경향점수 매칭과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한 접근』 제2회 서울교육중단연구학술대회' 논문을 KRIVET Issue Brief의 취지에 맞게 다른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재작성함.

| 각주 |

- 1)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12.29.]. 『2015년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 2) 진로교육법 제2조 3호(2015. 6. 22. 제정).
- 3)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진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활용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중학생 진로체험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 분석이 필요

- 2015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보도자료¹⁾에 따르면, 중학생의 74.2%(만족도: 3.81점/5점), 고등학생의 68.4%(만족도: 3.76점/5점)가 진로체험에 참여하고 있음.
-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진로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2회 이상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음.
 - 진로체험은 학생이 직접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 활동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함.²⁾
- 이 글에서는 중학생의 진로체험활동 참여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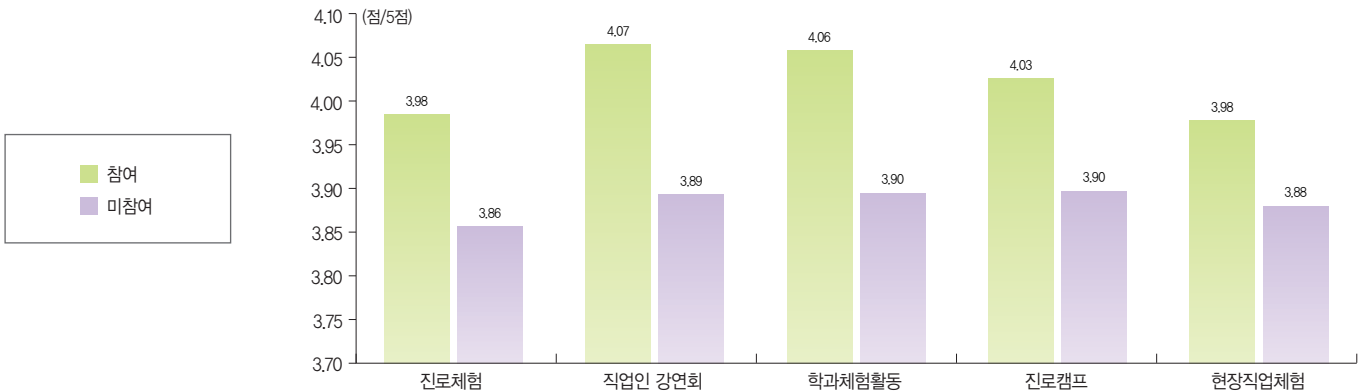
| 분석 자료: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의 『서울교육중단연구 6차년도 자료(2015)』

-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의 『서울교육중단연구 6차년도 자료(2015)』
 - 서울교육중단연구는 매년 서울특별시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특성 및 그 변화에 미치는 서울특별시의 교육정책과 학교 관련 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중장기 사업임.
- 분석 대상: 2015년 당시 중학교 3학년생 3,371명
- 분석 방법
 - 진로체험활동: '진로체험 참여'는 다음 네 가지 진로체험 유형 중 하나 이상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분석하였으며, 진로체험 유형은 ① 현장직업체험활동, ② 직업인 강연회 참석, ③ 학과체험활동, ④ 진로캠프로 구분하여 분석함.³⁾
 - 진로성숙도: 5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한 진로성숙도 관련 8개 문항("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다" 등)의 응답 평균값으로 분석함.

02 중학생의 진로체험활동 참여와 진로성숙도

| 진로체험활동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진로성숙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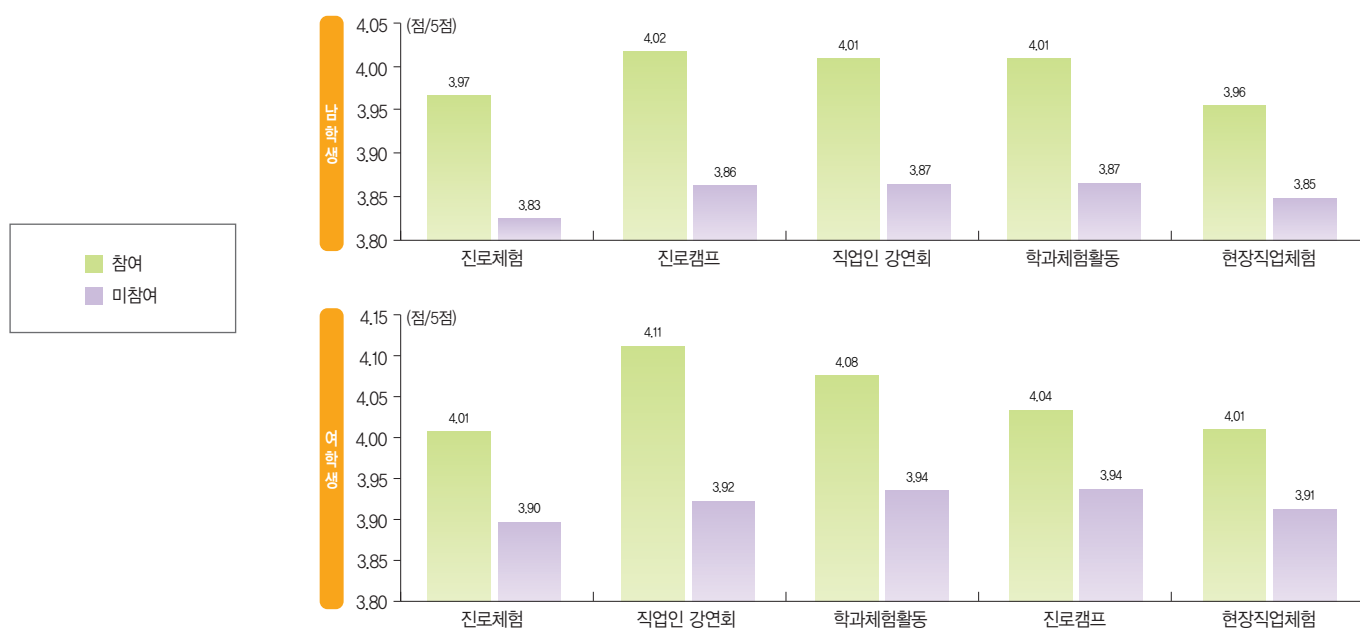
-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한 중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모든 체험 유형에서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3.98점으로 미참여 학생(3.86점)에 비해 평균적으로 진로성숙도가 0.12점 더 높음.
- 직업인 강연회(+0.18점), 학과체험활동(+0.16점), 진로캠프(+0.13점), 현장직업체험(+0.10점)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진로성숙도가 높음.
- 진로체험활동뿐만 아니라 진로체험 유형별로도 참여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체험활동 제공이 중학생들의 미래 직업 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1] 진로체험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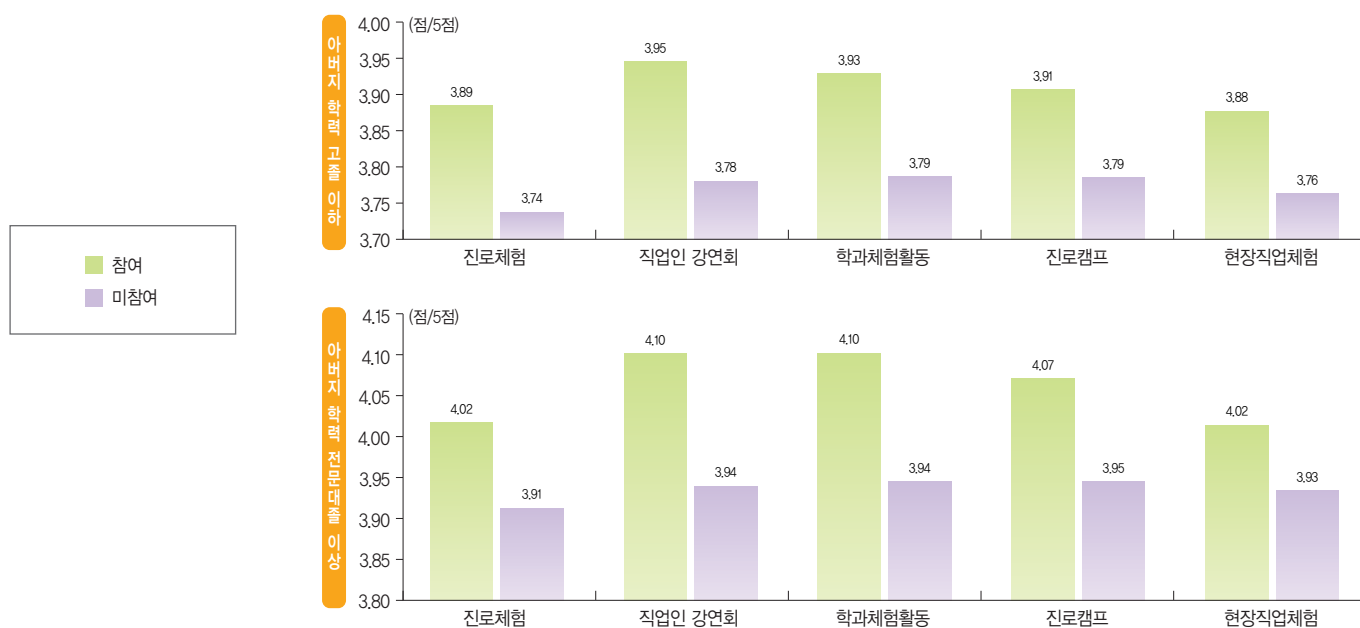
| 남녀, 아버지 학력에 관계없이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음.

- 남학생(+0.14점)과 여학생(+0.11점) 모두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한 경우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진로체험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큼. 이는 남학생의 경우 진로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진로성숙도 제고 효과가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 진로체험 하위 유형별로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한 경우가 미참여한 경우보다 진로성숙도가 높음.
 - 남학생의 경우, 진로캠프(+0.16점), 직업인 강연회(+0.14점), 학과체험활동(+0.14점), 현장직업체험(+0.11점)에 참여한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미참여한 학생보다 높음.
 - 여학생의 경우, 직업인 강연회(+0.19점), 학과체험활동(+0.14점), 진로캠프(+0.10점), 현장직업체험(+0.10점)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더 높음.
 - 남학생은 진로캠프, 여학생은 직업인 강연회의 참여 여부에 따라 진로성숙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효과적인 진로체험활동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



[그림 2] 성별 진로체험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비교

- 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높음.
 - 아버지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직업인 강연회(+0.17점), 학과체험활동(+0.14점), 진로캠프(+0.12점), 현장직업체험(+0.12점)에 참여한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미참여 학생보다 높음.
 - 아버지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직업인 강연회(+0.16점), 학과체험활동(+0.16점), 진로캠프(+0.12점), 현장직업체험(+0.09점)에 참여한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미참여 학생보다 높음.
 -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진로체험활동 참여가 자녀들의 진로성숙도 제고에 효과적임을 보여줌. 특히,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은 학생에게서 직업인 강연회의 참여 효과가 크게 나타나,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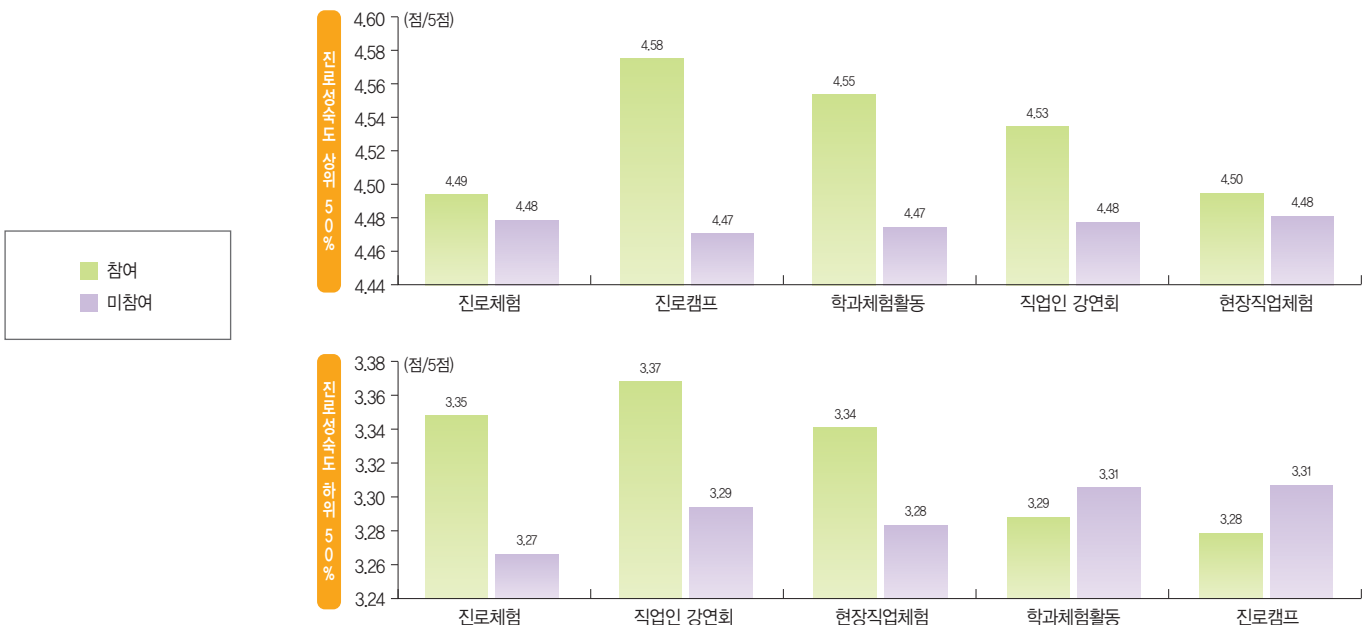


[그림 3] 아버지 학력별 진로체험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비교

03 진로성숙도 발달 수준에 따른 진로체험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

진로체험 효과는 진로성숙도가 낮은 학생에게 더 크게 나타나며, 진로성숙도에 따라 효과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다름.

- 진로성숙도 상위 50%인 집단(+0.01점)과 하위 50%인 집단(+0.08점) 모두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높지만, 그 효과는 진로성숙도가 낮은 학생들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남.
- 진로성숙도 상위 50% 집단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참여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높지만, 특히 진로캠프(+0.11점)와 학과체험활동(+0.08점)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진로성숙도 하위 50%인 집단의 경우 직업인 강연회(+0.08점)와 현장직업체험형(+0.06점) 참여가 진로성숙도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과체험활동(-0.02점)과 진로캠프(-0.03점)의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진로성숙도 발달 수준별 진로체험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비교

04 시사점

- 진로체험 참여 그 자체만으로도 중학생들의 진로성숙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진로체험의 필수화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확대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실시될 필요가 있음.
 - 진로체험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은 중학생들에 비해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부모의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진로체험 유형에서 참여 중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미참여 학생보다 높음.
 - 이는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지역사회 및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활동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계발하고, 진로탐색 역량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
- 교육당국 및 지역사회, 단위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수준에 따라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있어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김영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